

그는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고, 어떤 나라에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으며, 쓰러진 깃대에 부도
덕한 자의 검은 깃발을 매달았다. 그리고 성스러운 미지의 세계, 고약스럽게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영원한 불확실성을 향해 또 다른 험난한 항해를 끊임없이 준비한다. 손에는 단검을 쥐고 발로는 화
약통을 밟고 배를 출항시킨다. 어떠한 위협에도 외롭게 맞서며 자신을 위한 노래를 부르며 간다. 자
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멋들어진 해적의 노래, 불꽃의 노래, 운명의 노래를 부르며 간다.

— 스테판 츠바이크, 『니체』(1930년)

Nietzsche - Se créer liberté

© ÉDITIONS DU LOMBARD(DARGAUD-LOMBARD S.A.) 2010, by Le Roy and Onfray
www.lelombard.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4 JhagunGheel Publishing House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MEDIATOON LICENSING through Pauline Kim Agency, Korea.

본 저작물의 한국어 판권은 Pauline Kim Agency를 통해 MEDIATOON LICENSING과의 독점 계약으로 작은길출판사에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책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단 하나의 삶을 사랑하는길

NIETZSCHE

프리드리히 니체

막시밀리앙 르 루아 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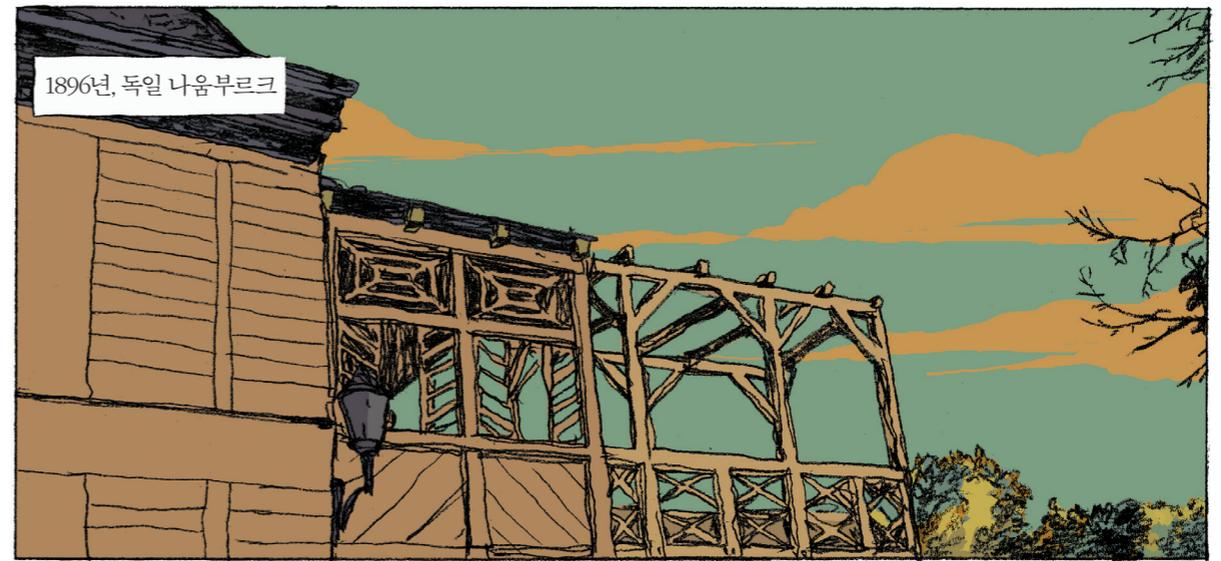
미셸 옹프레 『무구한 생성』 원작

임명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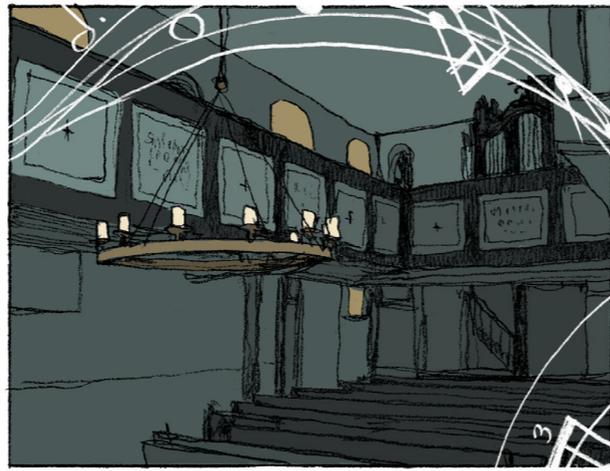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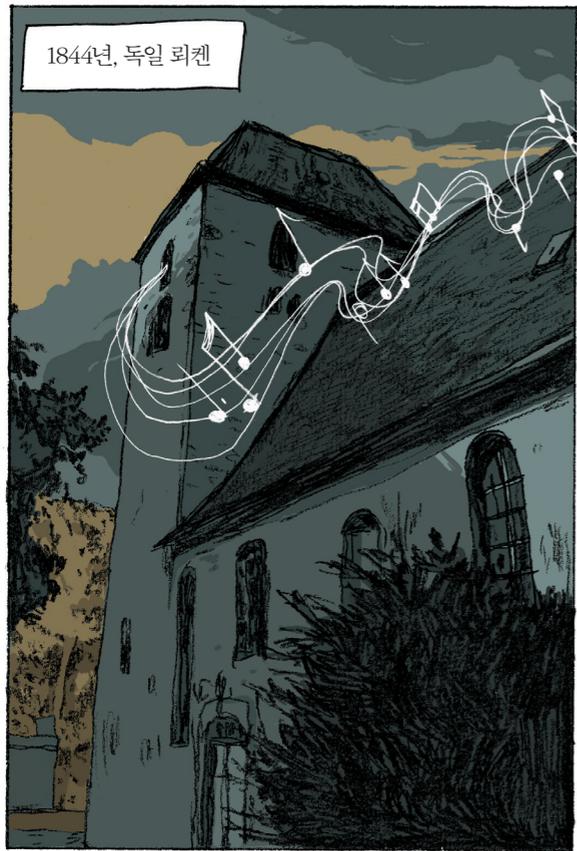
이수영 해제



막상스 에프리에게
M.L.R



1844년, 독일 뤼켄





Die
W
r
t
Wille und Vorstellung

Arthur Schopenhauer.*

* 1865년, 니체는 본대학의 지도교수 리츨을 따라 라이프치히로 대학을 옮겼다. 그곳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 아루트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다. 니체는 처음 이 책에서 독일에 만연한 허무주의를 극복할 희망을 발견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허약한 염세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열흘 넘게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네.
믿을 수 있겠나?



계속 읽기만 했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감탄스러워!
1000페이지야!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꾸었네! 농담이 아닐세.
잠을 자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출 정도야. 어떨 때는
내가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도
혼란스러워!



너무 흥분하면
몸에 해로운 것
같아서 '키리에'(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작곡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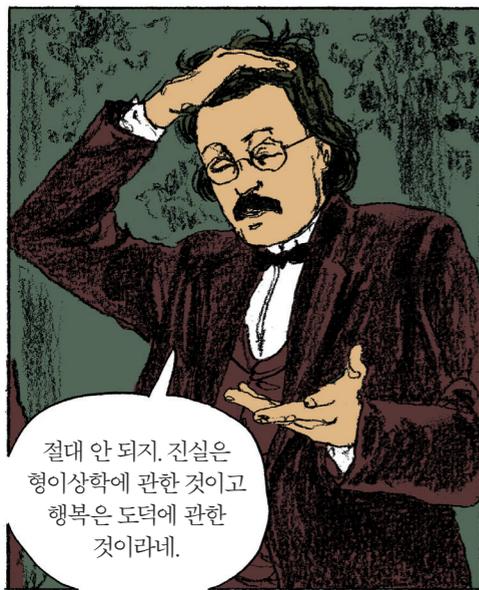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위대한가?
자네가 이런 상태가
될 정도로?



그의 철학은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진실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비밀이야!



왜 행복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



절대 안 되지. 진실은 형이상학에 관한 것이고 행복은 도덕에 관한 것이라네.



그럼,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제목에 답이 있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계, 실제 세계는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지.



의지, 의도라는 맹목적인 힘은



이 나무에서부터 우주의 질서까지, 자네와 나 모두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복종할 뿐이야.

자유가 아니라 필요이고! 자유선택이 아니라 결정론이라네!



그의 사상은 천년 넘게 우리 어깨를 짓눌렀던 기독교 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천만에, 에르빈*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네.



적어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은 종족보존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자연의 속임수에 불과해!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랑에 비밀은 없네! 자연의 법칙일 뿐이야. 우리는 자연의 장남감이고 쇼펜하우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설명해 주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럽군.



실망스럽지. 그래서 오히려 잘된 거라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욕망하기 때문이야. 욕망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말해 주었어. 행복해지는 방법을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

거 보게나, 진실과 행복이 꼭 반대되는 것은 아니잖나, 프리드리히!

* 에르빈 로데 Erwin Rhode 본대학 시절에는 니체와 아는 사이로 지나다가, 리츨 교수를 따라 라이프치히로 옮겨 온 이후 두 사람은 좋은 벗이 되었다.



부제가 '모두가 읽어야 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될 책이라니.

모두가 읽어야 하는 책이라면 모를까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될 책을 저를 못 냅니다!



선생 원고에는 위험한 얘기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차치하고라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출간됐던 책들의 서문을 새로 쓰고 다시 편집해서 출간하면 어떻겠소? 설명을 다시 하고 읽는 방법을 주면 되겠소.



선생의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서문을 읽겠소?



니체 선생, 어떤 출판사가 팔리지도 않은 책을 다시 출간하단 말이요?



저작권을 포기하겠소.

포기하다니요? 인세도 못 받고 있는데 포기할 저작권이 어딴소?



판매가 형편없어 인쇄비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데.



내 나이가 마흔셋이요. 열다섯 권의 책을 썼소. 그리고...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지요! 제발 상황을 파악하시요. 선생은 철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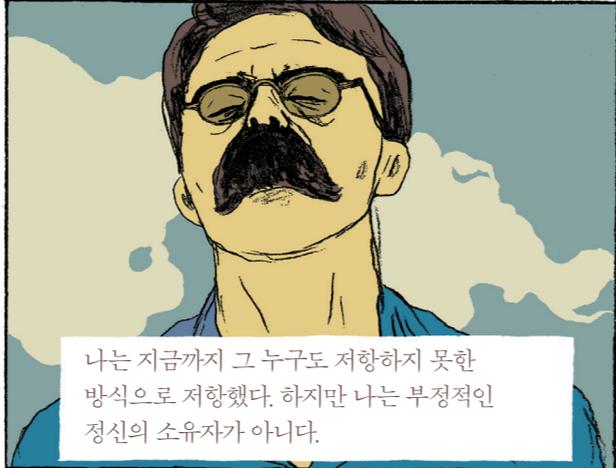
원고를 돌려드리리다. 다른 출판사와 얘기해 보시든지.

나는 잊어버리시오.





스무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부자연스러움과 인류 모독에 대한 나의 공격이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나는 부정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유쾌한 전달자이다.



내 말을 이해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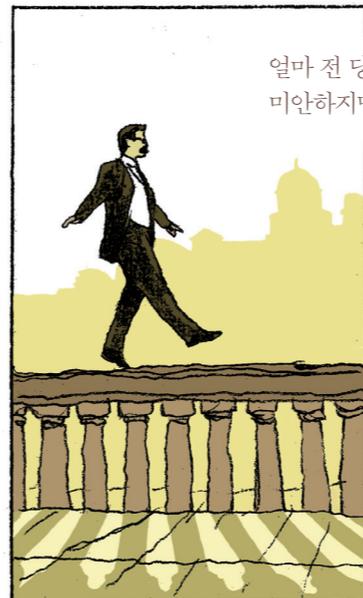


지금까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과제들에 대해 나는 알고 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믿음의 인간, '종교인'은 스스로 목표를 정할 능력이 없는 예속된 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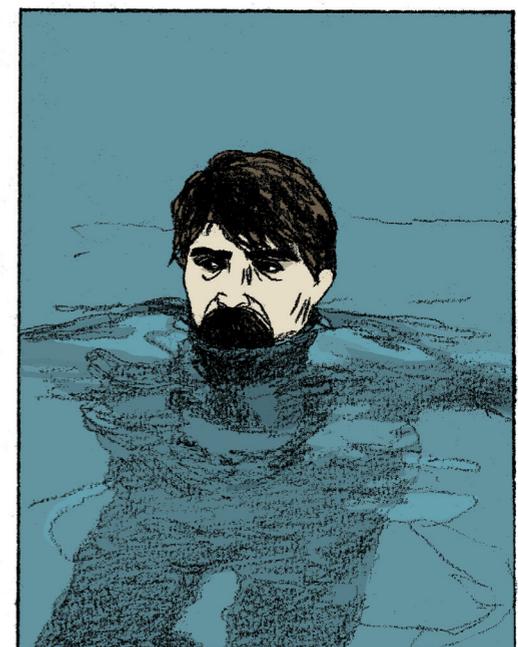
얼마 전 당신에게 최근에 쓴 책을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읽을 책은 아닙니다.



내게 감상평을 보낼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서기 2000년에 읽도록 허락되어야 할 책입니다.



* 여기부터 107쪽 첫 장면까지 구절은 『이 사람을 보라』(1889)에서 인용. 그 다음 구절은, 루 살로메를 만나게 해준 독일 페미니스트 말비다 폰 마이젠부르크 Malwida von Meysenburg에게 『선악의 저편』을 보내면서 편지에 쓴 글(1886년 9월 24일).